

# 선발진 4일턴→5일턴...KIA 순위경쟁 이제부터

개막 첫 주 4일턴 결과 실망  
윌리엄스 감독 전략 대폭 수정  
타선 스트라이크 존 공략 강조



‘호랑이 군단’이 안정감 있는 순위 싸움을 위해 전략을 수정했다. ‘5일턴’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조정하고 ‘스트라이크존’ 공략으로 타선의 힘을 더한다.

KIA 타이거즈는 개막 첫 주 브룩스와 멧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4일턴’을 가동했다.

4일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시즌 첫 경기를 소화했던 브룩스는 4일 휴식 뒤 지난 9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두 번째 선발 등판에 나섰다.

6일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KBO 데뷔전을 치른 멧덴도 역시 4일 휴식 뒤 11일 NC전까지 두 경기를 소화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외국인 선수들로 초반 공세를 벌이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브룩스가 4일 7.1이닝 2실점의 호투에도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1-4 역전패 경기의 패전 투수가 됐고, 9일 등판에서는 5회를 채우지 못했다.

5.2이닝 3실점으로 첫 등판을 소화했던 멧덴은 두 번째 경기에서는 홈런 ‘두 방’을 맞는 5이닝 4실점을 남겼다.

윌리엄스 감독은 “많은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브룩스 같은 경우 두 번째 등판 때 홈 개막전 행사도 있어서 신경 쓰는 부분이 많았을 것이다”며 “멧덴은 두 번째 등판에서 공이 밋밋한 느낌이 있었다”고 지



브룩스와 멧덴을 ‘4일턴’으로 기용했던 KIA 윌리엄스 감독이 전형적인 5인 선발 로테이션으로 마운드 체제를 바꾼다. 13일 선발로 나선 이민우(왼쪽부터)를 시작으로 브룩스-이외라-임기영-멧덴이 순서대로 출격한다.



(KIA 타이거즈 제공)

난 두 번의 등판을 이야기했다.

‘4일턴’을 통한 마운드 집중 공략 결과가 좋지 못했던 만큼 윌리엄스 감독은 5일 선발 로테이션으로 순리대로 경기를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13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 앞서 가진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브룩스가 일단 내일까지 4일턴 등판하고, 그 뒤로 5일을 쉬게 된다. 그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화요일, 일요일 단지는 일정으로 가게 된다”며 “앞으로는 전형적인 5인 선

발 로테이션 체제로 갈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KIA는 이민우를 시작으로 브룩스-이외라-임기영-멧덴 5명의 투수가 순차적으로 마운드에 오르게 된다.

선발 로테이션 간격을 조정해 전력투구로 마운드 집중력을 살릴 예정인 윌리엄스 감독은 타석에서는 ‘스트라이크존’을 강조했다.

KIA는 지난주 키움전 싹쓸이 3연승 이후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주말 안방에서 NC에 스텝패를

당했다.

윌리엄스를 끝낸 NC의 중심타선이 불을 뿜었고 KIA는 ‘강한 2번 타자’ 김선빈의 활약에도 터커, 최형우의 부진 속에 파워 싸움에서 완패를 기록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개막 후 첫째 주를 돌아봤을 때 타자들이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난 공에 스윙을 많이 했다”며 “코칭스태프 미팅에서 칠 수 있는 볼, 자신의 존에 들어오는 공에 스윙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다”고 언급했다.

세밀함을 강조한 타선에 다행히 부상 고민도 사라졌다.

지난 11일 허벅지 통증으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던 류지혁이 13일 정상적으로 선발 출장하면서 KIA는 한 시름을 덜었다.

‘롤러코스터’를 탄 지난주 패인을 살펴보고 전략을 수정한 ‘윌리엄스호’가 꾸준하게 시즌을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FC, 로테이션 가동 두마리 토끼 잡는다



FA컵 승리·전력 다변화 동시에 노려

오늘 부산교통공사축구단과 원정경기

광주FC가 로테이션을 가동해 FA컵 승리와 전력 다변화를 동시에 노린다.

광주는 14일 오후 7시 부산구덕운동장에서 부산교통공사축구단을 상대로 하나은행 FA컵 2021 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이번 FA컵에서 광주는 로테이션을 활용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정규리그에서 화끈한 연승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탔던 광주는 지난 10일 K리그 1 9라운드 성남 원정에서 0-2패를 기록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땀 뻘뻘한 경기 일정으로 인한 체력 저하와 선수들의 부상 등으로 고전한 광주에는 전력 다변화가 필요하다.

많은 일정이 몰려있는 4~5월을 잘 버티기 위해서 로테이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광주는 이번 FA컵에서 로테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로테이션을 통해 많은 경기를 소화했던 주전들에게 휴식을 주어 체력회복의 시간을 마련할 생각이다. 17일 ‘포항전 첫승’이라는 중요한 목표도 이뤄야 하는 만큼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통해 안방에서의 연승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대신 FA컵을 통해 그동안 많은 경기에서 나서지 못했던 선수들을 기용, 이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전술과 운영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수문장 윤영국을 비롯해 김호기, 김봉진, 정현우, 이순민 등 준주전급 선수들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인 만큼 동기부여도 상당하다.

FA컵에서 만나게 된 부산교통공사는 내셔널리그



정현우

시절부터 꾸준한 성적으로 주목을 받아온 팀이다.

K3리그 전환 후에도 강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올 시즌에는 1승 2무 무패로 안정적으로 리그를 보내고 있다.

또 부산, 성남, 울산 등에서 좋은 활약을 한 한상운과 포항을 거친 최우영 등 K리그 무대를 누볐던 선수들도 포진하고 있다.

단판 승부로 펼쳐지는 만큼 FA컵 승부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광주는 ‘기회’를 노리고 있던 선수들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고, 이른 시간 득점포를 날리며 경기를 쉽게 풀어가겠다는 각오다.

로테이션을 선택한 광주가 FA컵 승리와 함께 정규리그 구상까지 동시에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전남드래곤즈 김현욱·고태원 K리그2 6라운드 ‘베스트 11’

전남드래곤즈의 김현욱과 고태원이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김현욱과 고태원은 13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K리그2 6라운드 베스트 11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현욱은 지난 11일 열린 안산그리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터진 알렉스의 ‘극장골’을 도우며 1-0 승리의 주역이 됐다.

고태원은 안산의 수비를 철벽 봉쇄하면서 무실점 승리의 중심에 섰다.

지난 5라운드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시즌 첫 패를 기록했던 전남은 6라운드 안산 원정에서 알렉스의 K리그 마술같이 골로 승점 3점을 보냈다.

2승 3무 1패(승점 9)를 기록한 전남은 안산(2승



김현욱

고태원

2무 2패·승점 8)을 밀어내고 4위로 올라섰다.

한편 K리그2 6라운드 MVP는 안양 모재현에게 돌아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여자축구 도교행 무산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13일 중국 쑤저우 올림픽 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과 도쿄 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플레이오프(PO) 2차전에서 연장상부 끝에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지난 8일 중국과의 PO 1차전에서 1-2로 졌던 한국은 1-2차전 합계 3-4를 기록,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사진은 전반 31분 강재림의 선제골이 나온 뒤 기뻐하는 선수들. /연합뉴스

## 김광현 89구 소화하며 최종점검... 17일이나 18일 등판 전망

마이클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

“통증 재발 않으면 일정 정할 것”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홈구장 부시 스타디움에 등장했다.

미국 일간지 벨빌 뉴스-데모크랫의 제프 존스 기사는 13일(한국시간) “김광현이 우익수 쪽 외야에서 동료 투수들과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며 “김광현은 다가오는 원정 시리즈에서 올 시즌 처음 등판한다는 것을 절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마이클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도 화상 인터뷰에서 “김광현에 대해 긍정적인 보고서를 받았다”며 “통증이 재발하지 않으면 곧 김광현의 복귀 일정을 정할 것이다. 김광현은 거의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김광현은 12일 세인트루이스 구단 대체 캠프가 있는 일리노이주 세인트클레어카운티 소켓 GCS 크레딧 유니온 볼파크에서 열린 시뮬레이션 게임에 등판했다.

구단은 예초 김광현의 투구 수를 90개로 알렸지만, 실제 김광현은 86개를 던졌다. 시뮬레이션 게임을 마친 김광현은 세인트루이스 빅리그 팀에 합류해, 13일 부시 스타디움에서 훈련했다.

곧 복귀 시점도 확정될 전망이다. 세인트루이스는 17~19일 필라델피아 필리스, 20~22일 워싱턴 내셔널스와 원정 6연전을 치른다.

실트 감독이 아직 확답을 피하고 있지만, 세인트루이스는 원정 6연전에서 ‘6인 선발 로테이션’을 시험할 가능성이 크다.

세인트루이스는 잭 플래허티, 애덤 웨인라이트, 카를로스 마르티네스의 기존 선발진 3명에 김광현과 마이클 커리의 대체 선발로 낙점한

다니엘 폰스 데리온, 존 갠트 등 2명을 추가해 5명의 선발을 활용하고 있다.

폰스 데리온은 12일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1⅓이닝 6피안타 7실점으로 무너졌다. 현지 언론에서는 폰스 데리온의 ‘불펜 강등’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프 존스 기사는 “기존 로테이션을 따르면 마르티네스가 17일 필라델피아전에 등판해야 하지만, 세인트루이스는 당일 선발 투수를 확정하지 않았다”라며 “(11일 시뮬레이션 피칭을 한) 김광현이 그날 등판하면 다른 선발 투수들에게 하루 더 휴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폰스 데리온의 예상 등판일인 18일 필라델피아전을 김광현의 복귀전으로 점치는 현지 매체도 있다.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광현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건 세인트루이스 구단도 인정한다.

/연합뉴스

## 바르셀로나, ‘장외 엘클라시코’ 레알 제쳤다 사상 첫 가장 비싼 축구단 등극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가 ‘장외 엘클라시코’에서 역대 처음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제치고 축구단 가치 순위 1위에 올랐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12일 발표한 ‘전 세계 축구단 가치 톱20’ 순위에서 바르셀로나가 47억6000만달러(약 5조3550억원)를 기록, 레알 마드리드(스페인·47억5000만달러 약 5조

3438억원)를 1000만달러 차로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했다.

포브스가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 16년 동안 발표한 ‘전 세계 축구단 가치’ 순위에서 1위 자리는 차지했던 클럽은 레알 마드리드(5회)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11회)뿐이었다.

바르셀로나가 포브스 선정 ‘전 세계 최고 가치’

순위에서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를 제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에 이어 바이에른 뮌헨(독일·42억1500만 달러), 맨유(42억달러), 리버풀(잉글랜드·41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리버풀은 구단 가치가 무려 88%나 상승세 단숨에 5위까지 순위가 치솟은 게 눈에 띈다. /연합뉴스